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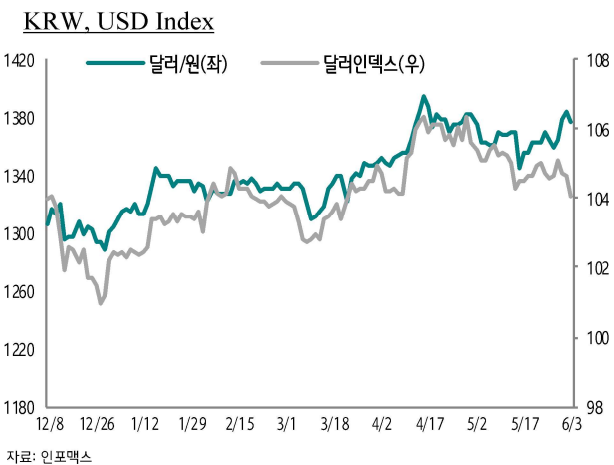
6월4일

[USD/KRW]

USD/KRW 예상 : 1364~1374원  
NDF 증가 : 1369.75 (Swap point : -2.20, 1371.95원)

- (금일 전망) 금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제조업지표 둔화에 따른 달러 약세와 위험선호 심리에 하락 전망. 미국 5월 ISM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은 제조업 부문의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달러 약세 압력이 나타난 가운데 환율은 추가 하락 예상. 또한, 위험선호 분위기로 인한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 지속 가능성도 하락 요인으로 판단. 다만, 수급상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저점 인식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단 지지될 것으로 보임. 이에 환율은 하락 압력 우위 속 1360원대 후반 등락 예상
- (전일 동향) 3일 달러/원 환율은 예상에 부합한 미 4월 PCE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며 2.5원 하락한 1382.0원 출발. 이어 위험선호 심리 지속되며 하방 압력 가중되는 가운데 전일비 8.4원 내린 1376.1원에서 마감

달러/원 환율 상승 요인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점 인식에 따른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매수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제조업 PMI 부진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과 달러 약세</li> <li>• 위험선호 심리와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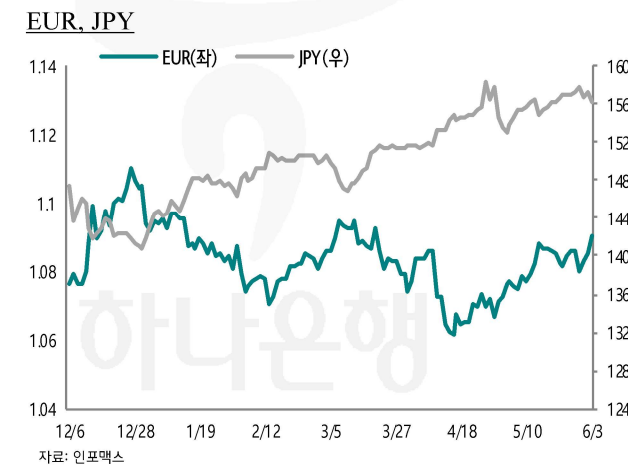
[Global Market]

EUR/USD 예상 : 1.0864~1.0964  
USD/JPY 예상 : 155.48~156.48

- (USD Index)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제조업 부문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이 확인되며 미 국채수익률 급락한 영향으로 달러 약세 지속. 달러인덱스는 0.57 하락한 104.07을 기록
- (EUR) 유로화는 독일 5월 제조업 PMI 최종치가 예상에 부합하며 전월 대비 개선된 가운데 미국 경기 부진 가능성이 부각됨에 따라 달러 대비 강세 시현. 유로/달러 환율은 0.0055달러 상승한 1.0904달러로 마감
- (JPY) 엔화는 미국 제조업 업황 위축세 등 경기 둔화 우려와 그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기대 속 미 국채금리가 급락한 측면 반영하며 강세. 달러/엔 환율은 1.23엔 하락한 156.08엔으로 마감

글로벌 통화 동향

구분	증가(전일비)	재정환율(KRW)
USD Index	104.07 (-0.57)	
EUR/USD	1.0904 (-0.0055)	1500.49 (-1.48)
USD/JPY	156.08 (-1.23)	881.65 (+1.55)
USD/CNH	7.2516 (-0.0111)	189.76 (-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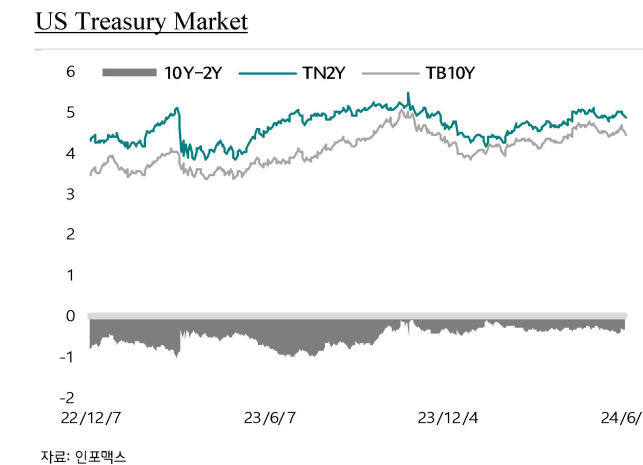
[Macro Analysis]

미국채 장단기 Spread(10Y-2Y) : -42.50bp (전일대비 -4.50)

- 글로벌 경제는 미국 제조업 경기의 위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측면에 주목. 미국 5월 ISM 제조업 PMI는 48.7로 전월비 0.5p 하락하며 예상치 49.6을 하회. 이 중 신규 주문 지수는 이전 대비 3.7p 낮아진 45.4로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지불가격지수는 57.0로 예상치 58.5를 하회.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속 미 국채 수익률은 2년물 6.50bp 하락한 4.818%, 10년물 11.00bp 하락한 4.393%를 기록. 뉴욕증시는 물가 압력 둔화 기대 등이 상존하는 가운데 다우지수 -0.30%로 하락한 반면 S&P 0.11%, 나스닥 0.56% 상승하며 혼조세 속 마감. 국제 유가는 OPEC+가 향후 감산 규모를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소식에 하락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

시간	내용	예상	이전
16:55	독일 5월 실업률	5.9%	5.9%
23:00	미국 4월 JOLTS 구인인원	8,360K	8,488K
	미국 5월 제조업수주 (MoM)	0.7%	0.8%



미 제조업지수 부진과 달러 약세, 1360원대 진입 가능성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